

보도시점 2026. 10. 23.(금) 11:30 배포 2026. 10. 23.(금) 9:30

이형일 부총리, 영등포복합청사 방문, 청년·고령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양극화 해소를 위한 3대 핵심 사회정책 중 주거분야 현장 방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23.(금) 10:30 서울 영등포구 소재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를 방문하여 행복주택을 둘러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와 주거 지원 개선과제를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K-뉴딜 아카데미에 이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두 번째 현장방문이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청년과 고령층의 주거 여건을 직접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오늘 방문한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는 캠코가 노후 공공청사를 위탁개발하여 공공청사와 행복주택,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조성한 곳이다. 대학생·청년 및 고령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안정을 지원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부총리는 행복주택 거주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주거환경을 살펴보았으며, “입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양질의 주택 공급부터 입주 이후의 유지·관리까지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이어진 관계기관과의 간담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부총리는 “집은 삶의 출발점이자 버팀목”이라며, “청년의 첫 독립부터 어르신의 노후까지, 국민이 생애 모든 단계에서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등포 복합청사는 도심 내 저활용·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청년과 고령층이 도시의 생활기반을 유지하며 적정 가격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2.8만호 공급계획 이행에 속도를 내는 한편, 기존 발표 부지 외에도 청년·신혼 부부 등을 위한 추가 주택공급 후보지를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에 가용자원을 집중투입하겠다”며,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현장에서 확인한 개선과제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이 주거안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시장과	책임자	과 장	백경원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haein1216@korea.kr)
	국고실 국유재산개발과	책임자	과 장	송인혜 (044-215-5240)
		담당자	사무관	김성희 (balbali@korea.kr)